

제2차산업경제위원회
2021. 6. 10.(목)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우경수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1년 5월 31일

나.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3. 제안 이유

- 지역 중소·벤처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와 충청 지자체 및 지역공공기관이 공동 출자·조성하는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금 지원 : 5,000백만원

○ 출자 목적

- 지역의 산업 및 기업특성을 반영한 지역거점 투자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 생태계를 개선하여 지역균형 뉴딜 촉진
- 창의적 아이디어 및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벤처기업 자금난 해소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규투자 및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벤처스타트업에 대해 집중 투자하여 육성

○ 출자내역 :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금 1식

※ 세부내용 ①-② 출자 사업계획서 참조

○ 출자개요

- 운 용 사 : 한국벤처투자(주)
- 유한책임조합원 : 충청지자체(충북 충남 대전 세종), 수자원공사, 한국모태펀드 등
- 존속기간 : 2021년 ~ 2033년(12년) ※ 투자기간 5년
- 펀드규모 : 900억원(지자체* 150, 수자원공사 300, 한국모태펀드 450)
- 투자대상 : 충청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벤처기업, 물산업기업

○ 기대효과

- 성장 가능성 높은 지역전략산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로 관내 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지역혁신기업에 투자 확대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생태계를 개선하여 지역균형 뉴딜 촉진 효과

5. 검토의견

□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가. 내용검토

-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 계획에 대해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출자 요청 내역 >

운 용 사	펀드명	모펀드 조성규모	한국모태펀드 출자액(비율)	우리도 출자요청금액
한국벤처투자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900억	450억원(50%)	50억원

1)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자규모는 총 50억원으로 2021~2022년 각 20억원, 2023년 10억원씩 3년간 출자할 계획이며, 900억원 규모의 펀드자금 중 지자체에서는 150억원, 수자원공사 300억, 한국모태펀드 450억원이 투자될 예정임

〈 출자금 내역 〉

(단위 : 억원, %)

출자자		전체규모	최초 약정액 ('21)	1차 증액 ('22)	2차 증액 ('23)	출자비율
합 계		912	304	304	304	100
LP2)	충청지자체*	150	50	50	50	16
	충북	(50)	(20)	(20)	(10)	(5)
	한국수자원공사	300	100	100	100	33
	한국모태펀드	450	150	150	150	50
GP3)	한국벤처투자	12	4	4	4	1

* 충북 50억원, 대전 70억원, 충남 15억원, 세종 15억원 - 출자자 상황에 따라 출자액 변동 가능

※ 한국벤처투자 12억 출자 : 업무집행조합원(GP)이 벤처투자조합 운영을 위해 출자금 총액 1%이상 출자의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의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주)는 중소기업 투자모태조합 운용기관으로서 모태펀드의 결성 및 운용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기관으로 모태펀드 재원 5조 8,482억원을 조성 중임
-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에는 한국모태펀드에서 450억원(50%)을 투자할 예정으로, 한국모태펀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하여 2005년에 결성되어 투자재원 공급은 정부가 하고, 투자 의사결정은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주)'가 담당하고 있는 정부 정책 펀드임

2) LP(Limited Partner) : 펀드 투자자

3) GP(General Partner) : 펀드의 운용사로서 투자자를 유지하여 펀드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펀드를 결성, 펀드를 결성 후에는 실제로 벤처기업을 발굴·투자하고 투자 이후에도 벤처기업을 관리·육성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역할과 펀드의 수익성을 관리하여 가장 최적의 시점에 투자한 지분을 매각하고 확보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

<한국모태펀드 개요>

결성일	2005년 7월 15일
Limited Partners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고용노동부, 영화진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펀드규모	5조 8,482억원(2020년 12월 기준)
운용기간	30년 (2005년 ~ 2035년)
주 출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진계정, 청년계정, 혁신모험계정, 소재부품장비계정, 엔젤계정, 지방계정, 문화계정, 관광계정, 스포츠계정, 영화계정, 특허계정, 과기계정, 보건계정, 환경계정, 해양계정, 도시재생계정, 국토교통혁신계정, 교육계정
운용기관	한국벤처투자(주)
2020년 모태펀드 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누적 출자펀드 : 881개운용, 28조 4,475억원 조성 (외부 출자금 19조 37,2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운용중인 출자펀드 : 666개, 23조 739억원 • 모태 출자펀드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2조 5,063억원을 회수 (회수원금 1조 633억 원, 회수수익 1조 4,430억 원) ※ 투자원금 대비 2.4배의 회수 수익배수(396개 모태 출자펀드, 981개 기업) - 전년 대비 회수 규모 : 금액 기준 38.1% 증가, 기업 수 기준 3.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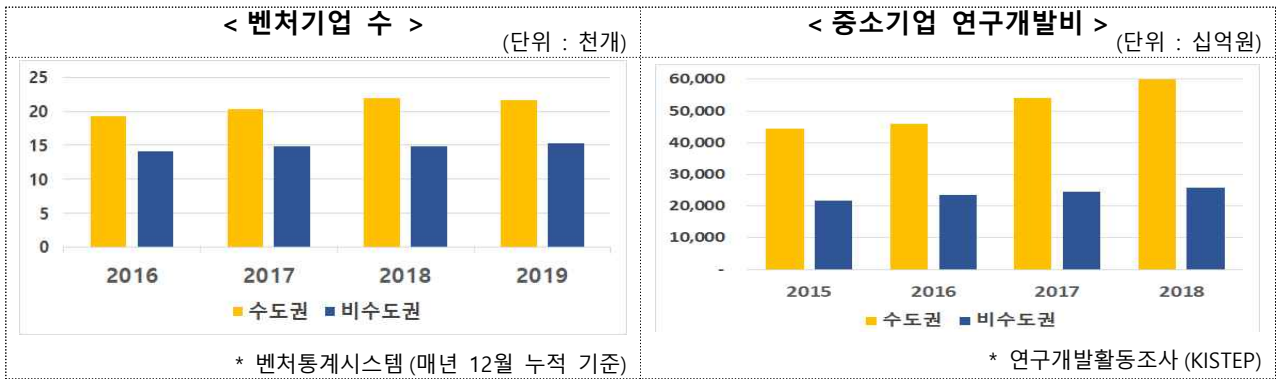
- 모펀드로 조성된 자금은 400억원 규모의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총 1300억원 규모로 자펀드를 조성하여 물산업 기업, 충청.세종.대전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벤처기업 등에 약정 총액 60% 이상 투자하고 이 중 충청.세종.대전 지역 소재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할 계획임

나. 검토의견

- 현재 지난 20년 7월에 시작된 한국판 뉴딜의 확산과 국민체감을 위해 지역의 주도적 참여가 중요하고 모태펀드 총 투자액의 약 70% 이상이 수도권 기업에 편중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 간 투자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출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수도권-지방 중소·벤처기업 차>



-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주)는 법률로써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공모사업자인 한국모태펀드에서 50%(450억)의 금액을 출자하는 만큼 펀드 운영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출자금액이 투자기관마다 상이한 만큼 충북도가 출자한 금액 이상으로 충북 지역 기업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자간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 지속적인으로 투자현황에 대한 감시와 투자를 통해 성장한 기업의 변화가 충북 경제 발전에 잘 반영되도록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 펀드를 통한 지원은 직접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 효과가 보증 등에 비해 직접적이라는 점 등의 장점들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예산의 확보로 펀드의 규모를 키워 지원 업체수를 늘려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됨.